

20231211 권찰회 (설교: 박관희 목사) 참된 행복(5기도)와 25 응답 (빌립보서 4:6-7)

-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우리 권찰, 부권찰 분들이 교구에서 이번 주까지는 좀 심부름 해 주시고요. 우리 권찰 방학, 이제 종강 들어가면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오늘 제목도 '참된 행복'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참된 행복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다. 보통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 제가 이제 왜 우리 여러분들도 현장 가서 많이 확인했지만 왜 점 하고, 굿 하고, 역술 하는 분들한테, 또 거기 가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왜 이런 걸 하시냐? 그러면 거의 100%입니다. 불안해서 그렇대요, 염려되고.

▶ 그리고 회사에 저는 이제 공단에서 이렇게 다락방을 쪽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큰 회사나 작은 회사를 보면 왜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절을 하고, 컷구멍에 1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집어넣고, 그런데 그걸 왜 하나니까 결국 하나잖아요? 이 회사가 잘될 수 있도록,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니까 그거를 의지하는 것이고, 의존하잖아요?

▶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좌의 능력이 함께 임하고, 어제 우리 담임목사님 서론에 지난주에도 그렇고, 어제도 이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 말씀 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중남미에서 열매로 맺혀지고, 또 우리 40일 집중훈련 때 중남미 현지인 사역자들이 와서 우리교회에서 40일 동안 있잖아요? 그런데 이 40일 있는 동안에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식사나 또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물질로 이렇게 돕는 게 지금 중남미에 열매로, 그리고 제자의 사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부분이 우리가 몸은 육신적인 부분은 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도의 부분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에 있는 식구들도 어쩌면 마음과 생각이 조금 많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자, 그러나 오늘 이 참된 행복, 이 기도가 전달 되어지고, 기도만 된다면 다 되는 겁니다.

▶ 저는 요즘 이렇게 또 새로운 응답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도 좀 알았던 기도지만 요즘은 이 기도가 전부다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여행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방향을 붙잡아 가고, 그래서 이게 기도가 전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론> 기도 행복

▶ 그래서 서론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의 행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교회는 기도 행복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우리 권찰, 부권찰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우리 태영아 캠프들도 기도합니다. 염려, 걱정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237, 5천 복음화 하는 거죠.

▶ 저는 내년이 너무 기대되는 게 내년에 우리 또 중남미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순회 사역을 통해서 찾아진 캠프, 또 제자들이 또 우리교회에 40일 동안 집중훈련 하러 오실 텐데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제가 목사니까 그렇다고 하시는데 목사로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하나님교회가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로 행복해야 돼요.

▶ 그래서 우리 왜 우리 전에 저도 한 30분 전에 올라와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우리 권찰회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위한 기도가 우리 류 목사님 그 메시지를 편 집해서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1. 7망대(성삼위, 보좌, 3시대, 오력, 우주, CVDIP, 3들) - 시스템
▶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 망대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스템이 내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교회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현장에도 세워질 수 있도록.'

▶ 그러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쪽 연결 되어서 세 가지 들까지, 이게 일곱 망대잖아요? 이게 시스템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 시스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부터 우리 세 가지 들까지 이 일곱 가지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2. 7여정(보좌, 10비밀, 10발판, 5확신, 9흐름, 평생 CVDIP, 캠프) - 전도, 선교

▶ 자, 그리고 우리는 일곱 여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여정이 있죠, 이게 길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부터 쪽 연결되어져서 이제 우리교회를 통해서 캠프까지, 빛을 전하는 이 캠프에까지 이 속에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또 9가지 흐름에 대한 부분, 또 평생의 답,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 이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여정 속에 있다. 남은 자고, 순례자고, 정복자죠. 이 기도제목, 제목마다 너무 좋아요. 이 하나하나의 기도제목들이 전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여정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3. 7이정표(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 안디옥 교회, 행13:1-12, 행16:6-10, 행19:1-21) - 방학

▶ 그리고 우리는 또 일곱 이정표가 있죠. 이정표는 도로를 가다 보면 표지판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그게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정표를 가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9:30절,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냈잖아요?

▶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겠죠? 지금 중남미 현장, 로마까지, 이 안에 이정표들이 다 있어요. 갈보리산의 언약부터 마가 다락방도 나오요, 안디옥 교회 나오죠, 아시야, 마게도냐, 마지막 로마까지, 강대국.

▶ 저는 우리 류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미국을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메시지를 들어보면 항상 일본을 많이 칭찬하잖아요? 일본은 뭐든지, 류 목사님이 일본만 좋아하시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일본을 많이 칭찬하잖아요?

▶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과 미국, 중국, 전부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이란 말은 바로 로마라는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전도, 선교로 이정표를 따라서 쪽 가는 걸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너무 중요한 방향이 되는 거죠.

▶ 그래서 이번에 미국 집회에서도 제가 이제 RCA 이제 메시지를 받았는데 미국에도 너무 중요한 이정표가 선포되었거든요? 미국을 이제 구제적으로 살릴. 이번에 중남미 집회, 파나마 전도 집회도 이제 영상이 올라왔거든요? 1강, 2강, 3강 보니까 결국에는 이 이정표 속에 로마라는 나라를 두고, 지금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방향이 되는 거죠.

* 5천 종족

▶ 그래서 이제는 진짜 5천 종족을 살려야 합니다. 이게 진짜 세계 복음화입니다. 5천 종족, 보통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제 다음 주는 우리 동남아 집회 필리핀에 있잖아요? 그러면 클락이라는 공항 이런 데서 만날 수 있는 필리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필리핀도요, 진짜 몇 천 개가 넘는 섬나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필리핀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게 5천 종족이죠.

▶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일본 제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목사가 되어서 오사카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같이 캠프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도요, 물론 대도시가 있죠, 도쿄, 오사카, 나고야.

▶ 이런 대도시 외에 그러니까 중소도시나 이 지방도시는요, 한 번도 복음, 교회, 예수 이런 단어를 들어보지 못한 일본 민족들이 너무 많답니다. 우리가 일본도 가보면 도쿄나 아니면 뭐 오사카나 나고야 이렇게 대도시 주변을 가지 사실은 그 안쪽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 5천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 그러니까 우리가 5천 종족이라는 말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두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두고, 우리나라 시간표는 사실 우리나라는 복음을 거부해서 그렇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민족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시골에 가봐도 교회는 있어요.

▶ 우리나라 통합 측 교단은 전도사 때 시골교회 2년을 가서 봉

사를 하고 와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서 2년 정도 거기서 이제 교회를 사역하고 돌아와야 목사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 때문인지 몰라도 아주 오지 마을에도 십자가가 달려 있는 교회는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그런 편입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축복 받았지만 사실 우리 가까운 일본만 해도요, 교회라는 단어를 몰라요. 제가 너무 놀란 게 목사라고 하니까 일본에 이민간 하시는 분이 목사가 어떤 직업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왜 목사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런 직업이다 라고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이민간 공무원이 목사라는 직업을 몰라요. 그 정도면 말 다 했잖아요?

▶ 그래서 일본이 너무 중요한 나라입니다. 물론 미국도 중요한 나라지만, 그런 눈으로 보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중남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만날 수 있는 237 나라는 만나지만 배를 타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걸어서 들어가야 할 정글 안에 있는 5천 종족,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아직 세계복음화 멀었습니다 사실은.

▶ 제가 1992년부터 오늘까지 다락방을 했는데 이제 서론한 것 같아요. 이제 내년부터 본론에 들어가야 돼요. 무슨 본론이나 하면 내년부터는 진짜 5천 종족을 향한 본론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제 메시지였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이만하면 되었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된 것 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 권찰, 부권찰 분들 내년에는 전부 다 중남미 한 번 다 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라 말고, 5천 종족을 향해 정글,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내가 중남미에 진짜 복음 한 번도 못 들은 이 정글 속에 가서 진짜 5천 종족 향해서 한번 전도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 지금 이 시간표가 온 거예요. 이번에 파나마 전도집회에서 너무 중요한 메시지 주셨거든요? 이걸 딱 기도제목으로 한번 기도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구에 있는 식구들도 함께 좀 기도의 행복을 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 자, 이 서론을 딱 가지고요. 우리가 5가지 기도를 드려야 되겠조.

1. 감사

▶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

1)상처 - 사탄

▶ 내가 갖고 있는 상처, 이게 사탄의 작품이거든요? 이게 치유된다는 거죠. 인간을 망치는 게 상처입니다. 또 안타깝게도 오늘도 어떤 여성분을 또 살해하고 잡혔는데 나이도 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냥 그 내용을 이제 다 나오지 않았는데 그 남자가 갖고 있던 이게(상처) 사탄이 이용해서 그 남자의 인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탄이 이걸 이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을 망쳐버려요. 복음과 기도밖에 없다는 말이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에 관한 부분에서.

2)치유(구원, 함께, 모든 일)

▶ 그러니까 뭐니까? 두 번째로 이 모든 부분이 다 치유된다 했잖아요? 치유. 왜냐?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사탄한테 당하는 존재 아닙니다, 구원 받았습시다. 거기다가 제가 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죄를 지어도 함께해요. 실수해도 함께해요, 모자라도 함께하고, 이게 축복입니다.

▶ 그리고 뭐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감사한 거죠. 이게 치유입니다, 모든 일.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잖아요? 내가 건강해도 절대주권, 몸이 아파도 절대주권, 치유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응답을 받은 거죠.

3)참 평안

▶ 그리고 세 번째가 뭐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사탄을 무릎 꿇게 하면서 참 평안이 넘치는, 불안한 게 아니고요. 생각과 마음에 불안이 오는 게 아니고, 평안하구나! 이 감사, 이게 기도입니다, 너무 놀랍죠. 그래서 우리 교구에 있는 식구들에게 이 기도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심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말씀 묵상

▶ 두 번째입니다.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도를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거죠.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까? 축복을 놓친 사람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사람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을 붙잡아라 하시면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속에 들어가라.

▶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매일 기도합니다. 시간 될 때마다 이 시스템을 두고, 전도, 선교를 두고, 방향을 두고,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 고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라. 왜 그러냐? 어제 서론에도 이 말씀 주셨잖아요.

1)세상 것

▶ 세상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 물질, 그리고 세상 것,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마음과 생각이.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없어지도록,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우리의 기도제목입니까?

▶ 세상 것이나 물질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데 말씀묵상 하면서 이게 없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교구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자칫 세상 것, 물질 때문에 좀 마음, 생각이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심부름 해주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자,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2)강단 중심(매일)

▶ 그리고 뭐니까? 우리는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강단 말씀 중심으로 매일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매일 강단 말씀 중심 속에,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수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금요일, 토요일, 그다음 오는 주일까지 매일 강단 말씀 중심으로, 이게 말씀 묵상입니다. 이 묵상 속에 꼭 들어가는 거죠.

3)흐름, 성취

▶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성취되는 응답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흐름이 있고, 성취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도 우리 중요한 흐름입니다, 성취될 응답입니다.

▶ 진짜 로마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아니 바울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로마복음화를 했잖아요? 우리는 바울보다 더 편하잖아요? 사실은. 혜택 받는 게 너무 많잖아요? 자가용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우리가 사실은 바울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 속에 있잖아요?

▶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서 로마복음화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 묵상하면 이런 흐름과 성취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구역 식구들한테 말씀묵상 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자 해서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3. 집중의 시간

▶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세 번째죠.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조.

1)분열, 중독, 집착

▶ 안 그러면 오늘 1번에 있듯이 마음과 생각이 분열될 수 있고, 또 아니면 중독에 빠질 수 있고, 또 집착에 빠질 수 있잖아요? 오늘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그 20대 남자가 집착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복음 외에 다른 사탄한테 잘못된 것에 집착하면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 그러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의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이 기도제목으로 한번 응답을 하나하나씩 누리보자. 이 시간이 없으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속에 하나에 빠지잖아요?

▶ 저도 요즘 많이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큰일 벌어지면 막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갑자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옆에 있던 분들이 '너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이렇게 할 정도로 왜 '아버지' 하잖아요? 그게 습관이잖아요?

▶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일을 보면서 기도 속에 들어 가잖아요? 이게 집중입니다.

2)비밀

▶ 그래서 이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행복이에요, 기도의 행복, 이 집중의 비밀 속에 들어갈 때 행복이 되는 겁니다.

3)매일(아침, 낮, 밤)

▶ 그리고 매일 아침에 눈뜰 때 기도하죠? 낮 시간에 기도하죠? 밤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침, 낮, 밤 시간에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죠.

▶ 그리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두고 내가 어느 시간표 속에 있는지 찾아서 기도 속에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제목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집중의 시간이지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행복하다니까요? 마음과 생각이 행복한 것은 기도 할 때만 행복해요. 생각을 하면 불안해져요, 염려 옵니다.

4. 치유

▶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다, 우리의 기도죠. 어떤 치유입니까?

1)나 - 치유(문제, 사건, 어려움)

▶ 나를 치유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이 치유되는 시간이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문제 있죠, 사건이 있죠, 어려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믿습니다, 그것 치유하는 시간이다.

▶ 우리 교구 식구들 지금 얼마나 많이 어렵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경제라는 부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나 사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역자분들이 매일 기도 하거든요? 우리 교구 분들, 우리 또 렘넌트를 위해서.

▶ 왜냐하면 너무 지금 현 상황이 많이 어렵고, 힘든 것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나를 기도로 치유하는 시간,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구 분들도 다 있어요. 그거를 치유하는 시간이다, 기도죠.

2)교회 - 치유(예배)

▶ 두 번째 뭘니까? 교회도 치유해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 되어지는 거죠.

▶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조금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어제도 1부 때 왜 고함 치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일단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치유 받아야 되죠. 그것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도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치유 받을 수 있도록.

3)세상, 현장 - 치유(사탄)

▶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있는 세상, 그리고 현장을 치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사탄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다 장악한 세상과 현장입니다. 그걸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치유다.

▶ 우리 왜 세 가지 뜰 속에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뜰이 뭐냐 하면 치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누구든지 오든지 다 치유할 수 있도록, 복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게 네 번째 기도에 대한 부분이지요.

5. 미래

▶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미래죠. 미래를 살리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1)하나님

▶ 그래서 하나님과의 균형,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게 미래예요.

▶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미리 미래를 볼 수 있다. 미리 CVDIP 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미리 미래가 보여요, 우리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절대 행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죠.

2)나, 현장

▶ 그래서 뭘니까? 나와 나의 것, 또 이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이게 말씀 성취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서 있죠? 축복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 망대, 여정, 이정표. 여기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성취예요.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게 미래예요.

3)미래(CVDIP)

▶ 그리고 세 번째 뭘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살릴 CVDIP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미리 CVDIP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 이 기도가 5가지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행복하다,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빌립보서4:6-7절에 있는 대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결론> 기도 -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 천군, 천사, 사탄 결박

▶ 그래서 결론에 보면요, 이 기도라는 부분은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있고요. 저기 망대 부분에 나오죠.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사탄이 결박돼요. 우리교회 안에 사람의 얘기가 많이 돌면 그건 사탄의 진짜 함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돌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가 계속 포럼 되어지고, 돌아야 돼요.

▶ 그게 교회예요, 그래야 사람이 살아요, 치유 돼요. 기도하면 사탄이 결박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천군, 천사가 동원 되어지고, 사탄 결박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행복해야 되겠죠.

▶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돌아오시거든요? 이제 콜롬비아 사역 후에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강권하셔서 또 주의 강단에서 중요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 하나님, 이제 권찰 방학에 들어갑니다. 방학 동안에도 참된 행복인 기도가 심부름 되어지는 귀한 우리 권찰, 부권찰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2023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헌신과 수고하신 모든 권찰 부권찰 분들에게 주의 손과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교회 자료팀

국장 : 강영호 장로 / 팀장 : 조재호 집사(choddq@hanmail.net)

유튜브 채널(대구하나교회) : <https://www.youtube.com/ihanachurch>

다음 카페 : <http://cafe.daum.net/hanarutc>

교회 홈페이지 : <http://www.ihanachurch.com/>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35 (우. 42748)